

○○ 회원사 동정

金星計電



ISO 공동 인증 획득

금성계전(주)(代表:白重英)가 지난 2월 13일 한국능률협회(KMA-QA)와 독일의 국제적 품질인증기관인 TÜV로부터 변압기, 주유기 등 9개 품목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였다.

국내와 외국인증기관의 인증을 함께 받은 것은 외국인증기관보다 국내인증기관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수출시 외국인증기관의 인증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공동인증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금성계전은 전기 및 기계분야의 품질검사에서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는 TÜV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ISO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관리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상의 필수 요건인 ISO 인증 획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인증기관의 인증을 함께 받음으로써 정부 물량 입찰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4년 3월부터 추진한 변압기, 주유기, 전력량계 등 9개 품목에 대한 인증 획득 작업은 이전의 인증작업 경험과 품질혁신에 대한 의지로 1년여만에 성공을 거두었고, 이 과정에서 업무표준화와 품질관리시스템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사원이 공유하는 등의 올바른 품질문화의 정착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이중 몇가지 제품은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의 안정성이 특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번 ISO 인증 획득은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93년 7월 PLC와 인버터, 8월에 MCCB(배선형차단기)와 ELB(누전차단기) 등에 대한 ISO 9002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 금성계전은 이

번 9개 품목에 대한 인증 획득으로 전체품에 대한 ISO 인증 획득이라는 품질혁신 목표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금성계전은 21C 품질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활동을 펼쳐 보다 완벽한 전사적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의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曉星重工業



SIEMENS사와 기술계약 체결

曉星重工業(株)(代表:柳鍾烈)는 최근 독일 SIEMENS사와 대구 지하철 전 노선에 소요되는 AC전인 전동기에 대한 기술제휴 계약체결과 함께 대구 1호선 추가 물량인 52대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983년 서울 지하철 2호선에 DC전인 전동기를 생산, 납품한 바 있는 효성중공업은 최근 반도체 기술 및 제어기술의 발달로 철도차량 분야에도 주전동기로서 AC전인 전동기를 이용한 VVVF인버터 시스템이라는 신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SIEMENS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이번에 기술도입한 AC전인 전동기는 신철연시스템을 도입하여, 소형, 경량화를 이룩한 기종으로 타 전동기 분야에도 기술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차량 전장품 전문회사로의 성장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二和電機工業



그린 UPS 輸出

二和電機(株)(代表:裴壽潤)가 최근 「그린UPS」와 「다이나믹UPS」 등 최첨단 UPS(무정전전원장치)를 잇달아 선보이며 국내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二和가 개발에 성공한 이들 제품은 종래 UPS보다 성능면에서 탁월함은 물론 환경면에서도 이바

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린UPS」는 정류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고조파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역률의 개선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전력용 반도체소자를 SCR 대신에 모두 IGBT소자를 채택, 기능향상을 달성했다.

그 결과 UPS용량과 비상발전기용량을 1대 1로 했다.

「다이나믹UPS」는 인덕터커플링을 사용, 배터리를 없앴 것이 특징이다.

인덕터커플링은 정전시 디젤엔진이 가동할 수 있는 공백시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제품은 인텔리전트빌딩에 사용하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國際電線



전력용 케이블 日 공급

國際電線(株)(代表: 裴恩出)가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고베, 스미토모, 가와사키, NKK 등 일본의 대형제철소에 전력용 케이블을 공급한다.

國際電線은 지난해 6월 일본 고베제철소로부터 제철소 설비보수 점검에 사용되는 전선수입 의뢰를 받고 소량의 제어용 케이블을 시험공급해 왔는데 고베측의 시험평가결과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선수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제전선이 공급할 전선은 고베제철소의 효고현 카코가와제철소의 설비보수 점검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8월 스미토모금속에는 4만달러, 가와사키제철소에는 1만달러 규모의 전력용 케이블을 시험공급했으며 이달에는 NKK에 1만달러 상당의 전력용 케이블을 시험공급할 계획이다.

국제전선은 고베제철소의 결과로 보아 가와사키, 스미토모, NKK 등에도 올해부터 전선의 대량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본제철소 등은 스미토모전기 등을 비롯한 일본내 유명전기회사 제품을 전량 사용해 왔

는데 최근 円高로 원가가 상승하면서 원가절감을 위해 이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동사는 일본제철소에 대한 전선공급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동경전력 등 전력회사에 대한 전선공급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原子力文化財團



전기에너지관 관람객 50만 돌파

엑스포과학공원내 전기에너지관 관람객이 지난 1일 50만명을 돌파했다.

韓國原子力文化財團(이사장: 김선창)이 지난해 8월 6일부터 재개관하여 운영 약 6개월만에 관람객 50만명을 돌파 전기에너지관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문화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기에너지관의 관람객이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학생들이 견학을 통해 전기에 관련된 역사는 물론 발생 원인, 사용방법 등 현장 교육장으로 학습 효과를 크게 높이는 등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기에너지관의 50만번째 입장객인 행운의 주인공은 이윤모씨(37세 부산 영도구 봉래동)이며, 직전 입장객 권자연양(12세 서울 은평구 역촌2동) 직후 입장객 허홍순씨(46세 충북 보은군 보은읍) 등 3명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金星機電



'95년 환경관리 모범업체로 지정

금성기전(주)(代表: 李鍾洙) 천안공장이 환경부로부터 '95년 환경관리 모범사업장으로 지정받았다.

금성기전 천안공장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수를 유기폐수, 무기폐수, 산·알칼리폐수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처리, 이를 법적 허용기준치의 10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하였고, 대기오염물질은 정화과정을 통해 기준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

여 공장은 물론 주위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었다.

알루미늄과 고철같은 금속편류는 공장내의 저장소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 처리하여 폐기물 양을 대폭 줄였고, 매년 100톤에 달하는 일반 폐기물은 공장내 소각로에서 처리하였다.

금성기전은 폐합성수지, 폐수처리오니, 폐유와 같은 산업폐기물의 위탁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비용, 청결)을 해결하기 위해 '95년에 7억원을 투자,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 소각로를 건설하고, 또한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환경관리 모범사업장으로 지정된 천안공장은 '93년 4월 공장이 가동된 후부터 지금까지 "공해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폐수처리장, 소각로, 폐유보관소, 금속편류보관장 건설에 총 30억원을 투자하였다.

환경시설 투자와 아울러 천안공장은 1사 1하천 정화운동, 일본과 미국의 첨단환경시설 견학, 국토대청결운동, 환경보전 자매결연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 기업이미지 제고와 같은 큰 성과를 보기도 했다.

특히 인근 국민학교와 환경보전 자매결연을 맺고 공장내 환경시설 견학과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천정화운동을 펼친 것은 이룬이 아닌 살아있는 환경교육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금성기전 천안공장은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을 제로(Zero)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해왔던 환경보존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환경운동 추진 등의 다양한 환경관련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現代重工業



승강기용 인버터 판매 本格化

現代重工業 중전기사업분부는 올해 인버터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을 강화, 매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現代는 지난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엘리베이터용인버터의 판매를 본격화, 매출액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미 엘리베이터용인버터는 大田 흥도동 아파트, 하남시 아파트 등에 적용, 판매했으며 여타 중소엘리베이터와 상담을 진행중이다. 또한 주차설비 등 운반장치업체에도 납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現代는 지난해 국내시장에 선보인 「하이드라이브 J100과 J300」이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 제품에도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매출 목표인 180억달성은 무난하리라는 것이 이 회사관계자의 설명이다.

LG電線



제2 성장의 해 선언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LG電線(株)(代表: 權炆久)는 乙亥年을 제2도약의 원년으로 표방하고 「2천년대 세계 톱 10기업」과 관련한 사업구조 조정 청사진을 발표했다.

LG電線은 이같은 대안의 하나로 우선 올해 전선부문의 매출액을 작년보다 12% 가량 높게 책정한 8300억원, '97년에는 1조원 규모에다 경상이익률 4%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운영키로 했다.

LG전선의 중장기 경영계획은 수익성 확보를 바탕으로 세계적 우량기업이 되기 위한 장기 경쟁우위 요소를 갖추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하부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전선부문을 주력사업과 육성사업, 독립수익사업 등 3개분야의 사업군으로 조정하고 주력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정보고속화시대에 따라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초고압전력과 광 관련사업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육성사업에는 LG전선이 신규로 사업

을 다각화한 사업용 고무와 특수알루미늄 그리고 리드프레임과 커넥터 같은 전자부품산업이 주요 개발프로젝트로 묶여져 있다. 향후 2000년에는 이 육성사업이 전선부문 판매출의 40% 정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전선은 또 독립 수익사업을 기존의 銅통신과 피복선 등 사회기간산업의 투자 성숙으로 나타난 성숙기사업으로 책정, 사업정예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와 함께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군으로 확보하고 고비용, 저수익사업의 구조조정, 운전자본의 감축 등을 중심으로 한 경영에서 시간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의 질」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한편, LG電線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자율 인사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부터 실시한 LG전선의 자율인사제도는 현장사원들의 의견수렴과 추천을 통해 사업부가 자율적으 조정과 반장을 선임하는 제도로써 국내에서는 유래가 없는 획기적인 인사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래 미국의 대표적 우량기업인 GM-SATURN社의 현장자율팀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작업 계획단계에서 일상관리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리더를 중심으로 작업자 스스로 참여하는 현장 혁신활동이다.

LG전선은 현재 반장 한사람이 통솔해야 하는 현장사원이 평균 20명으로 일반적인 관리통솔범위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반장 개인 기준으로는 현장사원이 50명이 넘는 경우도 있어 현장의 의견수렴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組長의 신설·운영이 불가피했었다.

LG産電



물류자동화분야 ISO 9001 인증 획득

국내 최대의 산업용 전기·전자업체인 LG산전(주)(代表: 李喜鍾)가 지난 1월 23일 프랑스 인증기관(BVQI)으로부터 물류자동화 분야의 4개 품목(자동창고시스템, 팔레타이저시스템, 도로교통관제시스템, 철도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시스템 특성상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요구되는 물류자동화시스템에 대한 ISO 인증 획득으로 LG산전은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ISO 품질규격에 대한 인증은 국제교역의 필수 사항으로 이번 ISO 9001 인증 획득은 LG산전 물류자동화시스템의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산전은 물류자동화시스템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품질혁신과 연구·개발 활동 결과 지난 '94년에 경부고속철도 신호제어시스템 수주, 미안만에 국내기업 최초로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을 공급, 국제상사 종합물류시스템 수주 등 국내외에서 LG산전 물류자동화시스템의 품질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LG산전은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우위를 확보하고, 해외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해외진출을 강화할 전략이다.

지난 '94년 2월부터 시작한 인증획득 작업은 최고경영자의 품질혁신에 대한 의지와 6명으로 구성된 추진팀의 조직적인 노력으로 1년여만에 성공을 거두었고, 이 과정에서 업무표준화와 품질시스템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사원이 공유하는 등의 올바른 품질문화의 정착을 이끌어 냈다.

LG산전은 '94년부터 품질혁신 전담팀 구성, 품질혁신을 임원 목표항목으로 중점관리 그리고 국제품질규격 인증 확대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펼쳐온 결과 품질관리 측면에서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이번 물류자동화 분야에 대한 ISO 인증 획득도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LG산전이 펼친 다양한 혁신활동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95년을 “품질혁신의 해”로 정한 LG산전은 21C 품질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생산품목에 대한 ISO 인증을 확대하여 보다 완벽한 전사적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환경표준화 규격인 환경경영시스템(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구축작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